



# 미래 포장산업에 대한 제언

A Suggestion and Contribution for the Future Packaging Industry



신 양 재

(주)이생 기술연구소 소장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 포장업계는 또 다시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각계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 등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 라고 말해지는 시점에서는 항상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지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포장(Packaging) 산업의 경우도 사회적 기능과 역할, 중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 로드맵(Load Map) 등의 원론적인 부분은 그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부분에 관한 접근도 각종 발표나 자료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방법적인 문제, 리더(Leader)로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등의 부재가 현재 한국 포장산업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이미 많은 분들께서 노력 중에 계시며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활동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 피력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시장상황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 현대 사회의 큰 이슈(Issue)는 환경문제, 고령화, 핵가족화(저출산)이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어 그 만큼 시장변화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일단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부분은 각 국가나 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임의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과 이슈(issue)화된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강력하게 요구되어진다.

고령화는 포장에 갖는 기능적, 간편성 측면이 특별히 요구되어 진다. 기능적 측면은 노인식,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위생, 안전, 보호성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간편성은 근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배리어 프리패키징 (Barrier-Free Packaging), 유니버설 디자인 패키징 (Universal Design Packaging)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핵가족화(저출산)의 경우는 특별히 국내 시장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량화, 간편성이 요구되어진다. 핵가족화는 그만큼 소비의 단위가 적어짐으로써 다양한 사이즈를 요구하게 되며 특히 소량화 된 포장이 요구되어진다. 간편성은 고령화와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덧붙여 제품 직접 이용 대상이 다양해져 '어린이 보호포장' 과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시장상황이 요구하는 포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해 보면 크게 기능화, 복합화, 감용화라 할 수 있다.

기능화는 다양한 시장 요구에 맞게 디자인되어지고 포장 자체 본래의 기능에 충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료의 특성과 가공 기술에 의한 형태 및 기능 변화를 통하여 무한한 시장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복합화는 제품의 사용형태, 소비자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단일한 재질 및 구조로는 시장 대응이 힘들다는 것이다. 근래에 시장에 가보면 종이, 플라스틱, 병, 캔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편리하여 좋은 소비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제품을 쉽게 볼 수 있다.

감용화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원 절약, 생산자 측면에서의 코스트 다운(Cost down), 소비자 측면에서의 사용의 편의성(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잇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장 요구상황이 대부분 유저(user)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유저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생산자도 코스트 다운(cost down)이라는 메리트가 있어 기술의 개발과 변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와 시장의 변화, 이에 따른 기술의 변화는 대처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비단 포장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 포장산업이 다들 어렵고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위기가 곧 기회' 라는 어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루어내는 기업은 사업진출 및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고 수동적이고 정체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포장이 제품 생산의 부산물이 아닌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심에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